

“생태문명시대의 원년”

송하진 도지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년 우리는 전대미문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바이러스로 세계가 멈추었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년 넘도록 사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염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감염병과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성장과 발전만 지향하던 산업과 시대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문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 생태문명의 시대는 첨단기술과 인간다움이 교차하며 직조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여야 합니다.

전북이 앞장서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과정에 담대하게 뛰어들겠습니다.



다. 전북에는 이미 첨단기술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자연과 인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그린모빌리티·재생에너지·탄소융복합산업과 농생명산업, 여행체험1번지로 위기극복과 기회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망과 도시가 생겨나고 있는 미래의 땅 새만금에 생태문명의 청사진을 펼쳐겠습니다. 사상 최대 국가예산 8조원 확보, 한국탄소진흥원 지정, 전북규제자유

특구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SK 컨소시엄·GS글로벌 새만금 투자, 전라감염 복원 등 2020년 한 해 위기 속에서도 차근차근 이뤄낸 성과를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아 변화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2021년 전북 도정의 사자성어는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뜻의 '영정치원(寧靜致遠)'입니다. 더 멀리 나아가고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이 평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한 해 전북 도정은 생태문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과 함께 감염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어려운 민생경제를 정성껏 살피겠습니다.

다시 희망을 얘기하고, 도전을 꿈꾸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우리의 꿈과 노력이 모여 신축년 새해가 생태문명시대의 원년(元年)이 되고, 안정과 희망을 되찾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위태로울 때 더 강해지는 전북 교육”

김승환 교육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김승환입니다. 2021년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위기를 겪으며 2020년 한 해를 힘겹게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감염병의 위협과 싸우는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위태로울 때 역설적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나라가 존재

위기에 놓였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길거리 어딜 가나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들불처럼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그랬고,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러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힘을 모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2020년 전북교육을 지탱해준 것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비대면 수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열정으로 학생을 가르치신 선생님들, 전북교육을 변함없이 믿고 지지하신 학부모님들, 밝고 씩씩하게 지내준 어린 학생들이 아깝도 코로나19와 싸운 진정한 전사입니다.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특별히 더욱 건강하십시오. 가정과 사회 모두 평안한 일상으로 곧 돌아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상상력과 용기, 연대의 힘으로 미래의 큰 물길 열 것”

김승수 전주시장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전주는 시민들의 빛나는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추진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발전의 큰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완산철물 한빛마루 조성,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문화공간 완산방개 1973 등 전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는 로

파크(Law Park)와 한국문화원형관 텐트 체험전시관로 다시 태어납니다. 전주영화종합영양소 인근에는 K-film 제작기반 영상산업 허브가 구축되고 전주역세권에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ICT노보이션 스퀘어가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수소체험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도 건립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주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물동이를 물에 길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주로 향하는 거대한 물길을 끌어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주는 이미 흥취 있고 우리 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전주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랑이 되는 도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모든 일에 끈기 있게 도전”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를 맞아 풍요와 부의 상징인 소의 기운이 도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널리 퍼져서 여유와 평화를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조류인플루엔자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역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 모두가 전례 없는 경제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께서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묵묵히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협조 해주셔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현안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대안도 제시하며 전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과 역할을 견뎌내면 희망과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새해 전북도의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뉴노멀을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견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선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새만금 메가시티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탄소와 수소, 전기차, 드론, 인공지능(AI), 로봇, 농·생명산업 등 전북도의회가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형 뉴딜사업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립공공예대 설립,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지방의정센터 등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처럼 모든 일에 끈기 있게 도전해 전북 대도약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 발전의 새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큰 변화·혁신으로 새로운 자치시대 열어갈 것”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자치분권을 향한 열정을 담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 옷을 입은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바야흐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주민참여권 또한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구현과 함께 주민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가 보장돼 지역주민의 권익 신장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치분권의 뼈대가 세워진 만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새로워진

다는 일신월이(日新月異)의 마음가짐으로 전주시의회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더 큰 변화와 혁신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진광불회(眞光不輝)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빛은 반짝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순간의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전주의 백년대계를 꿈꿔왔습니다.

오직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번영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전주시의회를 향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거듭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이루는 보다 나은 도시로”

강임준 군산시장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 끈기와 묵묵함을 상징하는 하얀 소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꼭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2020년 한 해 저립도시 군산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맞이하는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2020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코로나19'가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가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에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큰 혼란과 두려움으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역경 속에서도 그나마 군산시가 모범적인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 주신 시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와 군산시 공직자 모두가 감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성숙한 시민의식과 시정발전에 대한 시민 모두의 열정에 힘입어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저립형 경제도시의 기틀을

미련 할 수 있었습다. 지난 9월에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출범, 수성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센터 등 관련 연구기관 유치,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지 발굴사업 공모 선정,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으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출시한 전국 최초 공공배달업 '배달의 명수'는 군산시 랑상품권과 더불어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되었으며, 전국적 수범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62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경제 재도약의 추진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노력으로 신축년 새해에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들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산업·고용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새로운 기대와 간절한 염원으로 출발한 민선7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직 군산의 위기극

복과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해 힘 없이 달려 왔습니다. 때로는 시행착오가 따르기도 했지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보다 나은 길을 찾아가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려와 염려 속에서 시민들의 믿음과 성원에 힘입어 취임 초부터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이 만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이 시민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시민의 힘으로 이루는 보다 나은 군산'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늘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일구어 나가는 시정으로 보다 나은 군산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 펼쳐질 군산의 또 다른 변화의 길에 시민들께서도 힘찬 발걸음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마스크 없는 밝고 환한 얼굴로 마주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적극 시정 운영으로 더 희망찬 도시 조성”

정현을 익산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시민과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인 국가예산 8,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지역

화폐인 '익산다이로움'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또, 전국 최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명품주거

환경 조성, 민생경제 안정, 힐링 친수공간 확충 등에 방점을 둔 적극적인 시정 운영으로 더 희망찬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뜨거운 열정과 잠재된 역량을 모아 함께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따뜻한 시선으로 익산시정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지경성(有志竟成)… 향기공화국의 원년으로”

유진섭 정읍시장



신축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축은 흰 소를 말하며 신성한 기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기운으로 정읍시는 우직하게 앞만 보며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한 해였습니다. 당연했던 일상을 빼앗겨 버렸고, 살림살이가 힘들어졌으며,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조차 답답하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업무량을 감내하며 방역 최전선을 지켜내는 의료진들, 폭집을 자며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돌본 공무원들, 집단감리자들을 위해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준 자원봉사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읍시는 신축년 새해의 사자성어를 '유지경성(有志竟成)'으로 정했습니다. 유지경성은 올바른 뜻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정향누리 향기공화

국 정읍'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의 행복과 정읍의 발전을 위해 거시적 안목으로 올바른 뜻과 굳센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읍시의 결연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먼저 코로나19의 지역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손 씻기 생활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아직 멀 것인 가?' 라는 시구처럼 코로나19의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의 봄이 신축년 새해에는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